

로마서 5장 12-21절

아담과 그리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 은혜와 의의 선물

요약: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 은혜의 왕노릇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5:12-21은 첫 사람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됨을 말합니다. 본문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담의 대표성을 보아야 합니다. 아담의 죄는 그의 개인의 죄를 넘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모두 인류의 대표자로 묘사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불순종과 순종은 그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모든 후손들의 운명을 결정 지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 그의 모든 후손은 죄와 사망을 경험하게 되었고 사망이 왕 노릇하여 이들을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대한 순종으로 죄와 사망의 통치를 이기고 은혜와 생명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은 바울이 비교하여 대비하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불순종과 순종의 영향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의 모든 후손들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의 비극적인 운명에 동참하여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모든 인류가 예외없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은혜와 생명의 통치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서 아담의 후손들이 은혜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의 구속사역이 자신의 것이 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죄와 사망이 더 이상 그 어떤 영향도 신자에게 주지 못한다는 말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세력보다 더 강한 은혜의 새로운 통치가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이 왕이 되어 군림하고 다스리지만 훨씬 더 강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순종 하심으로 그 분을 통한 은혜가 이제 믿는 이들의 왕이 되어 다스리기 때문에 죄가 다시는 왕의 노릇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죄가 짝 붙들고 왕의 노릇을 하던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신자일 지라도 죄를 전혀 안 짓거나 죄의 유혹을 전혀 느끼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더 강력한 은혜의 통치 아래에 죄를 더 이상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오던 시절은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의 왕의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보다 훨씬 더 강한 하

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남아 있는 죄와 사망의 잔재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며 우리의 삶은 전투하는 삶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순간부터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 주신 은혜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17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말씀을 듣고 믿은 자 / 보내심을 받은 자

요약: 구원은 이미 구원을 얻은 신자를 복음전하는 자로 귀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말씀이 전파되고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입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단계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13절에서 구원 앞에는 부름이 있고 10절에서 시인 앞에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하고(17절) 들음은 전파에서 일어 납니다. 이러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성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파송하지 않으시고도 다른 이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성도를 파송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할만한 자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 입니다(15절). 구원받아 성도된 존재는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파송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드러냅니다. 만약 이러한 보내심에 대한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자신의 것에서만 머물게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는 존재하는 것을 간과하는 일이고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복음에 대한 거부와 불순종을 구약성경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거부했습니다. 이들의 반응과 그에 따른 상태를 바울은 해설합니다. 들음이 없이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는 들음이 생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시작은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된 우리를 이제 다른 이들을 위한 복음 증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상을 위한 삶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며 또한 중요한 것은 듣는 이들의 믿음의 시작이 우리가 아닌 오직 말씀 그 자체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지하여 그

리스도를 드러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로마서 13장 8-10절

사랑의 빛

값을 수 없는 사랑 / 평생 갚아가는 사랑

요약: 십자가를 통해 보답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진 우리의 감격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표현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8장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하며 이웃을 사랑할 것에 대해 권면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이웃 사랑을 '빛'이라는 개념을 통해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15절에서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합니다. 빛은 단어자체에도 '의무'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자에게 자신이 빛졌음을 말하며 이에 따른 채무를 행하듯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한번 더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웃을 사랑할 의무에 대해 말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빛에 대한 감격의 회복입니다. 그 값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는 평생을 다해도 이를 보답하거나 갚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본문 8절에서 아무리 갚아도 항상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는 빛, 사랑의 빛에 대해 말합니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 더욱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들여서 이웃을 사랑해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 갚았다고 생각한다면 사랑의 빛은 계속해서 새롭게 청구될 것이기 때문 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 할 때까지 채무자가 의무를 가지고 빛을 갚아가듯 이웃을 살아하고 또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웃 사랑을 통해 우리는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을 평생토록 지키며 완성하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기본 의도와 정신과 목적이 사랑 안에서 모두 충족된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이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실현하느냐를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십니까?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랑에 빛졌음을 기억하며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서 더 감사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2장 8-14절

여리고 정탐과 기생 라합

하나님의 인도하심 / 믿음의 결단

요약: 우리는 라합을 통해 분별하여 아는 것과 믿음의 결단을 배워야 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되는 배경으로 여호수아서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여호수아 2장은 가나안 입성을 위해 가장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싯딤에서 일어난 내용입니다. 민수기에서 열두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두 명을 선발하여 여리고를 정탐하게 했습니다. 이들이 비밀리에 정탐하는 것이 눈에 띄어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고 정탐꾼들은 급하게 기생 라합의 집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라합은 성문에 있는 여관을 운영했고 그곳을 통해 성문을 오가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자들의 방문에 대해서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정탐꾼들이 접근하기에도 자유롭고 여리고의 소식을 얻기 위해서도 최적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하고 정탐꾼들이 선택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가게 된 집에서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뜻하지 않게 라합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리고 정탐꾼들에게 이미 라합이라는 여인을 준비시켜서 보호받게 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 라합의 입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까지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것과 아모리 왕들을 물리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함이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고 이러한 소문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워 녹아내렸다는 라합의 말은 정탐꾼들의 보고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첫번째 가나안 정탐에서 열 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기세에 겁에 질려 낙담스러운 보고를 했지만 두번째 여리고 정탐에서 정탐꾼들은 라합의 고백을 통해 여리고의 기세와 군사력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라고 확신에 찬 보고를 합니다.

라합의 관점에서 살피보자면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결정이 라합 자신에게도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라합은 여리고 왕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처음 보는 다른 민족의 정탐꾼 2명의 편을 들어주었을까요?

오늘 라합의 결정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처음 보았을 때 아마 정탐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잡으러 사람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고 지붕에 벌여놓은 삼베에 이들을 숨겨 놓았습니다. 이후 왕이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이미 정탐꾼들은 삼베에 숨어 있었습니다. 후에 라합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를 이야기 합니다.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가나안 땅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졌음을 알았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소문을 익히 들었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미 취하여 그들에게 주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는 것과 이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고백을 통해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을 통해 우리는 분별하여 아는 것과 믿음의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